

# 수출입 정보

2019.07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02. 수출입물류 동향

- 무역위, 中·인도産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日, 반도체·DP 소재 부품 수출 규제

## 03. FTA 동향

-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04. 최신 품목분류

- 건조한 채소류의 혼합물이 분리되는 호는?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965호, 2019.6.19>

### □ 개정사유

- 「관세법」에 따른 비특혜 수출물품 및 일반특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조사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 주요 개정내용

- 훈령의 제명 개칭 및 모법 추가(제명,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을 삭제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조사 중지·재개 규정 신설(§15의2)  
관세법 시행령(§139의2)을 반영, 특정 사유시 조사 중지·재개
-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규정 및 서식 신설(§74, 별지 제53호서식)  
**검증 수용성과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불복절차 안내 강화**
- 관세법에 따른 수출·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규정 신설(§84~§106)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과 세부절차 미비 내용 보완
- 기타 미비사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체계에 적합하게 자구 수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이 훈령 시행 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21호, 2019.7.1.>

### □ 개정 사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이 개정(‘19.9.1일 발효)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정문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 개정 내용

가.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하여, 한-EFTA FTA를 한-EU FTA로 정정하고 한-미 FTA 물품 중 명태와 민어의 품목번호를 정정함. (제3조제1항)

나.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중국해관총서)을 반영함. (제8조제8항)

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함. (제10조제1항)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당초 발급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업체편의를 증진함. (제17조제13항)

마.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원산지증명서 보완대상을 확대**함. (제21조제5항)

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제21조제6항)

사. 원산지 서면조사 제출서류 미비 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22조제3항)

아.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을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 현행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개정**함. (제23조제1항)

자. 한-싱가포르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별표2)

차.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 2012에서 HS 2017로 전환**(2019.9.1.일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4)

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함. (별지 제1호)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76호, 2019.7.3>

### □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수출환급 지원강화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제한(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완화 등

\*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안분

### □ 주요 개정내용

#### 1)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대상 확대 (§9)

-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

\* (기존) 환급 제한 품목에 해당 될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 없이 일괄 적용  
- 수출물품 생산에 해당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로 확인되는 경우 배제 사유에 추가

\* (기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개별법,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하는 경우만 배제 사유로 인정

#### 2) 환급 신청 전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신청 (§10)

- **환급 신청 전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신청으로 배제사유 사전 확인**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업체 불편사항 해소

\* (기존) 환급신청인의 별도 신청 없이 세관에서 배제사유 확인

#### 3) FTA 사후적용 예정세율에 근거한 세율별 물량비중 산정 허용 (§7③)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전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FTA 예정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허용

\* 신고한 비중이 FTA 사후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과다환급 사전 예방

#### 4) 서식 정비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서”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을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통관기획과-3032, 2019.6.28>

### □ 개정사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완화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확대

○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실적 인정, 부가세 환급 등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 철폐

### □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축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거래구분부호 15 사용여부)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청요건 중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삭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삭제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갱신)신고서' 서식(별지 제13호) 중 **통신판매번호 항목 삭제**

○ 잠정수량·가격신고 대상물품 확대

-수출시점에 판매대상이나 판매수량·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전자상거래 수출거래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대상 확대**

\*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 판매자 물품을 판매 전에 구매국가(미국) 아마존 물류창고 집하·보관하고, 판매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

## 02. 수출입물류 동향

“무역위, 中·인도産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PET 필름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 지속 우려”

중국과 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에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6월 20일 제389차 회의를 열어,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에 5년간 13.51 ~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PET 필름이 가진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사용하며, 사용 범위가 넓고 앞으로 새로운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무역위는 현재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이 ▲재심사대상 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 ▲재심사대상 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인상억제 효과로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정했다.

현재 PET 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대 수준(약 30만톤대 수준)으로, 중국 및 인도産 시장점유율은 약 10%대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 알리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8.9.12.)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02. 수출입물류 동향

“日, 반도체·DP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정부, 대응책 마련 부심”

“日, 수출신고 절차 강화 ... 건별 수출 허가에 심사까지 90일 예상”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관련 소재 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日정부가 7월 1일 강제노역 배상 판결과 관련한 보복성 경제 조치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日정부는 7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용 소재인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OLED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신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3개 품목은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과 심사까지 90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수출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 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日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 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리지스트(HS 코드 37.07-9000)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이고,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HS 코드 28.11- 1100)는 반도체 회로를 식각(에칭)할 때 사용하는 소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 코드 39.20-9900)는 불소 처리해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한다.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對日 수입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 7%로 산업부는 에칭가스는 2010년 72.2%에서 올 1~5월 43.9%까지 낮아졌지만, 리지스트(95.5% → 91.9%)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97.7% → 93.7%)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면서 민·관 공조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03. FTA 동향

##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 “브렉시트에도 통상환경 안정성·연속성 확보 ... 車 관련 수출품목 무관세 유지”

우리나라와 영국이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에도 영국과 안정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통상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2016년 6월)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2016년 12월)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2019년 1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 기존 한·영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 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對英 수출 시 전체 상품 중 99.6%는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로, 한·영 FTA 미체결 시 평균 4.73%의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고려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고려해, EU產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과 관련해서는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03. FTA 동향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산업부, 한·ASEAN FTA 한계 극복 ... 新남방 정책 간 시너지 효과 기대”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이어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말레이시아는 ASEAN 국가 중 우리의 4대 교역국으로 정부는 말레이시아와의 별도 FTA를 통해 新남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다렐 레이킹(Darell Leiking) **장관**이 **6월 27일 영상회의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3월 13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에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에 합의했으며, 양국의 국내 준비 절차가 모두 완료돼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양측 모두 올 11월 예정인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 선언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FTA 협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 시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FTA는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한류·할랄 협력 등 경제협력의 토대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정부의 新동방정책과 우리 정부의 新 남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지향의 동반자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양국 통상장관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양국은 7월 1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양국 협상 대표단은 상품 분야 시장개방을 포함, 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ASEAN FTA가 체결돼 있지만, 공통 FTA의 한계점이 있어 이것을 극복하려면 新남방국가와의 개별 FTA가 필수여서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04. 최신 품목분류

“건조한 채소류의 혼합물이 분리되는 호는?”

“‘건조한 채소의 혼합물’으로 봐 제0712호로 분류할지, ‘조리한 채소 혼합물’으로 봐 제2005호로 분류할지?”



<물품설명>

- 얇게 잘라서 건조한 당근 25%, 무 25%, 무청 15%, 표고버섯 10%, 우엉 30%를 혼합하여 부직포백에 담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
- [내용량 : 225g(15g×15티백)/pack]
- 용도 : 식용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양파·버섯·송로·당근·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립(strip)이나 얇게 썬 상태로 조제되어 있으며,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채소류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9000호에 분류함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지원관세법인**  
G-ONE Customs & Trade Service Corp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